이숙견 상임활동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을 박상혁 의원 안(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과 최기상 의원 안(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으로 나누어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재벌 특혜를 통하여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고,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긴급하게 '노동건강권·기후환경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안 폐기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특별법의 이름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은 물론, 기후 생태의 복원력까지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부·여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일부 재벌과 대기업을, 이윤을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연구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성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부산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부산 지역 산재사망 노동자와 사회적 재난 참사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10월 26일 저녁 6시부터 추모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연구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가톨릭노동상담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위험의 이주화와 사회적 차별로 희생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재해를 다루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51건의 사망재해로, 59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오마이뉴스> '이달의 살인기업' 참조).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가 사망한 고 뚜안 님의 1주기를 맞아 제작된 다큐멘터리 <뚜안에게 가는 길> 공동체 상영, 이후 영상을 제작한 <뉴스민> 박중엽 기자와 지역 활동가가 함께하는 GV 행사도 가졌습니다.

